

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의 임상적 고찰

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내과

강선우 · 김양욱 · 김영훈

목적 : 횡문근융해증은 외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외상성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.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가 없어서 저자들은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의 원인별 빈도와 임상경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.

방법 :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부산백병원에 입원한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 68예를 대상으로 임상자료를 분석하였다.

결과 :

- 1) 비외상성 원인으로는 알콜과용이 21예로 가장 많았고, 그 외 근육허혈, 쇼크, 감염, 약물, 경련, 고열, 당뇨병성 케토산증, 운동, 일산화탄소중독, 저인산혈증 순이었다.
- 2) 전체 예중 44예 (64%)에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고 17예 (25%)에서 사망하였다.
- 3) 급성신부전 중 18예 (41%)에서 펩노성이었고, 13예에서 투석을 시행하였고, 16예에서 사망하였다.
- 4) 기타 합병증에는 간기능손상, 파종혈관내용고, 저칼슘혈증, 성인성호흡곤란증후군, 폐렴, 폐부종, 고인산혈증, 고칼륨혈증 등이었다.

결론 :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은 드물지 않게 발생되고 있고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다. 최상의 치료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에 달려있다. 따라서 평소 비외상성 원인에 대한 임상적 숙지가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 환자 발생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이다.